

히스기야 왕& 십계명 제7계명

히스기야는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믿음직한 하나님임이셨어요. 히스기야는 어떤 때를까요?

학습 포인트

1. 하나님에 대한 믿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어떤 때는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지 않아 보여요. 왜 그런가요?

2. 제7계명: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를 끝까지 소중히 여시는

하나님은 이런 관계를 남편-아내의 관계로 자주 비유하세요

'믿음직하신' 하나님임이세요.

3. 믿음직한 우리들:

그런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과 서로에게 한 약속을 소중히 지켜요.

우리는 먼저 우리에게 '충실히'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 계명을 지킵니다.

성경 말씀

병이 나은 히스기야의 마음은 누구에게로 갔나요?

히스기야의 병을 낫게 하신 분은 누구인가요?

열왕기 하 20:13

히스기야는 문병 온 사절들을 환영하고 그들에게 자기 창고에 있는 은과 금과 향품과 값진 기름과 그리고 무기고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 주었으며 궁전과 나라 안에 있는 소중한 것 중에 보여 주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Hizkia nam hun boodschap in ontvangst en liet hun al zijn schatkamers zien: het zilver, het goud, het reukwerk, de kostbare oliën, en ook zijn arsenaal en alles wat zich in zijn magazijnen bevond. Er was niets in zijn paleis of in zijn rijk dat Hizkia hun niet liet zien.

Hezekiah received the envoys and showed them all that was in his storehouses—the silver, the gold, the spices and the fine olive oil—his armory and everything found among his treasures. There was nothing in his palace or in all his kingdom that Hezekiah did not show them.

생각해 볼 질문들

-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나님께 충실했나요/충실하지 않았나요?
-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 우리도 하나님처럼 충실하려면 어떤 작은 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소중히 여기실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안에 있기 보다는, 다른 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은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림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복습해 봅시다. 어떤 상황이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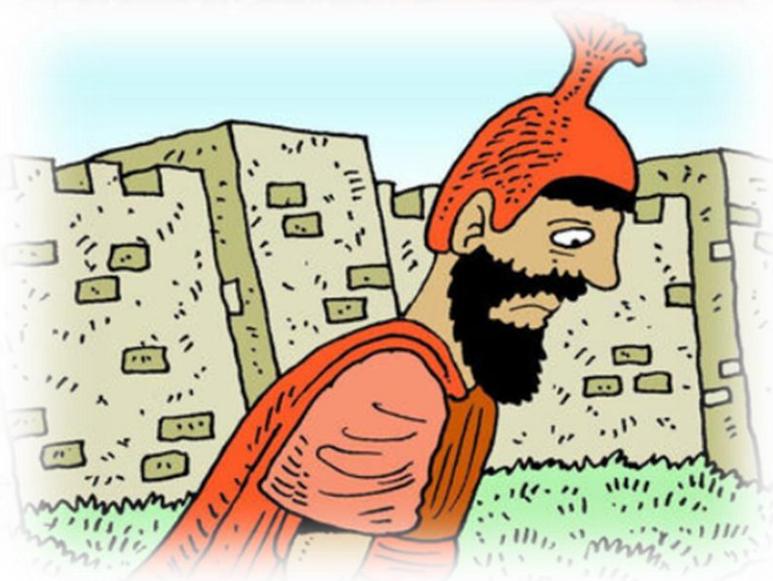
1



2



3



4



5



6



기도

우리와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믿음직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해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약속을 잘 지키고 가족과 친구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기도해요.

출애굽기 20:14의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배워보며, 약속을 존중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